

# ‘전북, Food로 소통하다’ 이색 컨퍼런스

전북문화관광재단, 11월 2일 팔복예술공장서 ‘넥스트 마스터즈’ 개최

오는 11월 2일, 전북도 주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과 큐레이션을 커머스 미미호호 주관으로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이색 컨퍼런스가 열린다.

넥스트 마스터즈 2022는, 꾸준히 성장 중인 전북 소재의 식품기업과 정국의 유망한 식품기업이 모여 기업의 성장 전략과 그들의 철학, 브랜딩과 마케팅의 대단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전북, Food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쌀, 건강, 디저트, 트렌드 세션과 마케팅과 전통주 특별강연으로 크게 6가지 카테고리 나뉘었다.

쌀 세션에서는 UN식량농업기구 모범농민상을 수상한, 이동현 농부과학자가 만드는 특별한 쌀 이야기, 허립 더미식 브랜드의 김민순 마케팅 실장이 ‘즉석밥 2.0 시대’를 주제로 즉석밥 후발 주자인 더미식의 대단한 마케팅 노하우에 대하여 강연한다.

건강 세션에서는, 우리밀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만드는 전주 소재의 식품기업 천년누리의 장운영 대표가 전주비빔밥과 비건 전주비빔밥 세계화 전략에 대하여 발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스타트업 기업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가 제로 카페인 작두콩으로 만든 커피의 생산, 제조, 유통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CU에서 하루 평균 6만 개 이상 판매, 시간당 2,600개, 분당 43개씩 판매, 지난해부터 전국을 크림빵 신드롬을 일으킨 연세크림빵의 기획자 연세유업 배영석 차장은, 가정배달 매출에 집



넥스트 마스터즈 2022

중되어 있던 연세유업이 유통업계의 후발 주자로서 전혀 취급하지 않던 빵이라는 생소한 품목으로 전국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숱한 여러 제품들의 실패와 성공 노하우를 디저트 세션에서 강연한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좀처럼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디저트 시장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아 꾸준히 성장 중인 ‘담뿔’의 오숙경 대표이자 떡 명장은, 작은 카페로 시작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과 기업 성장 노하우를 공유한다.

가정간편식(HMR) 무인판매 기업 프레스고2의 이진구 대표는 트렌드 세션에서 강연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무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 전국에서 간편식 비대면 무인 판매 시장을 선도하는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장시장의 합한 그로서리 ‘365일장’의 추상미 대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 이야기와 로컬 브랜드 판매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틱톡코리아 공식 파트너사인 솫만 연구소의 윤승진 대표가 ‘마케팅은 솫폼으로’라는 주제로 강연, 페이스북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인 서울벤처스 신현규 대표는 ‘100억 소핑 물 빨리 달성하기’라는 주제로 이커머스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발표한다.

넥스트마스터즈는 참신하고 색다른 네트워킹의 자리도 마련하였다. 제로카페인 작두콩으로 만든 커피와 제로탄소를 위해 비닐 쓰레기가 없는 전주비빔밥을 즉석에서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재단은 특화산업인 식품을 주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수도권에만 집중된 학습의 기회와 네트워킹의 자리를 전북에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였다 고 밝혔다.

이색 컨퍼런스답게 진행 방법도 흥미롭다. 참가 노쇼를 줄이기 위하여 책정된 참가비 1만 원은 참가자들 양수에 5만 원 상당의 선물로 보답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연사로 참가하는 기업의 제품들을 집에 돌아가 직접 경험하도록 선물한다.

/김경수 기자

## 전북 관광 이כל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성료

전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 디지털 올인원 인턴’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국내 마이스 업계 종사자, 마이스 분야 취업 희망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MICE협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

번 교육은 스마트관광과 마이스, 마이스 디지털 인사이트와 이기는 마케팅 등의 강의를 비롯하여 전북 마이스 유니크메뉴 투어,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이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 온라인 행사 송출 시스템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재단 관광진흥본부 김현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내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북형 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어린이 뮤지컬 겨울왕국 ‘엘사의 생일파티’ 김제서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1월 11일 오후 7시 식을 줄 모르는 랫고 열기속에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창작화한 어린이 뮤지컬 ‘엘사의 생일파티’가 개최된다.

주요같은 음악, 보석같은 노래, 발레와 뮤지컬의 플라보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겨울왕

국’의 주제곡 ‘Let it go’는 물론 후속편 인투더 언노운(into the unknown), 사랑은 열린문(Love is an open door) 등 겨울왕국 명곡들이 라이브로 이어지며 발레와 뮤지컬이 무대에서 함께 조화를 이룬다.

동화속 개성과 공주님들이 펼치는 버라이어

티한 무대, 겨울왕국 OST 원곡의 감동과 가창력을 겸비한 최고의 배우들로 구성되어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우석대, ‘한중 서화 교류전’ 개최

11월 4일까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작가 50명 작품 100여점 전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한중 서화 교류전’을 연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류전에는 한중 양국과 미국·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50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또한 ‘호남 속 중국’ 사진영상 작품 20여 점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교류전은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주최하고 한중미술협회와 베이징 한중서화기연협회·태원사범대학 예술학원·산서사범대학 미술학원·실크로드영상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전라북도·주광주중국총영사관·태원사대 국제실크로드문화예술연구소·산동사범대학·광주 차이나센터·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한국돈황SILKROAD학회·전북일보가 후원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문화전수자인 장복금 작가의 ‘책가도’와 차홍규 한중미술협회장의 ‘우리의 미래’, 한국계 미국 작가 공민진(Minjin Kung)의 ‘Under The Water’ 등이 선보인다.

또한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창사오웬



장복금 작가 ‘책가도’

(常曉君) 태원사범대학 예술학원장과 위진광(呂金光) 산서사범대학 미술학원 교수, 이란의 중국미술 전문가인 나스린 다스탄(Nasrin Dastan) 작가 등의 풍경화와 인물화, 서예 작품이 공개된다.

‘호남 속 중국’ 사진영상전에서는 한중 교류를 상징하는 전라남북도의 유적인 전주 ‘소주가(차이나타운), 익산 ‘송림사’, 부안 ‘채석강’, 화순 ‘주자묘와 적벽’, 해남 ‘진서마을’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관련 개막식은 11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며, 남천현 총장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차홍규 한중미술협회장, 천비이(南希) 중한인문교류협회 부회장, 이종호 전북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 아젠다 연계 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 수강생 모집

전주대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11월 20일까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가 11월 20일까지 아젠다 연계 인문 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온다라 교양 플라자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2회씩 전북의 누정문화, 통치문화, 양반문화, 출판문화, 한옥문화 등을 주제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진행한다.

강사진으로는 전주대 HK교수인 서정화 교수를 비롯하여 이동희 예원예술대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 남해경 전북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학문적 교류 및 전문성을 높였으며, ‘일상탈출, 누정에서 쉼 쉼 쉼!’, ‘전라감사, 납시오!’, ‘전북의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북원판 vs 서울경판’, ‘#한옥#내돈내산#DIY’ 등 전북의 유교문화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iac.kr/hk/)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jondara), 인스타그램(jonda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 남원시 무료 영화 상영 행사 가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서 시행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대표 김형준, 이하 도키텍)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도키텍스페이스 남원점에서 무료 상영 행사를 개최했다. 도키텍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창작공간 활

화 지원사업 내의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했다. 남원시 하정동에 위치한 도키텍스페이스 남원점에서 29일~30일, ‘겨레원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등 매일 3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됐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축협에서 직영하는 소문난 외식 명소!**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명품한우의 참맛을 보여드립니다.**

**2010~2012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대통령상) 수상**  
**2013~2021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9년 연속 국가 명품인증 수상**

sunjeongch.nonghyup.com 한우전문음식점/축산물판매장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위치 송산동 한빛교회 앞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4(송산동34-1) 문의전화\_063) 538-9400~3**

찾아오시는길: 정읍시청, 정읍시(천변로), 시장연합 2차, 남원시, 정읍시, 완주, 내장산, LPG 충전소, 한빛교회